“1편 장첸이 호랑이라면 2편 강해상은 사자”

마동석

‘범죄도시 2’ 기획·제작·주연 맡은 마동석
“유도기술 등 통쾌한 액션 더 많이 볼 것”
다음달 18일 개봉 앞두고 132개국 선판매

한국 남자 배우 최초로 마블의 히어로 영화 ‘이터널스’에 출연한 배우 마동석이 전편에 이어 기획과 제작, 주연을 맡은 영화 ‘범죄도시 2’로 돌아온다.

마동석은 22일 온라인으로 중계된 글로벌 론칭쇼에서 “프랜차이즈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은데 감사한 기회”라며 “많은 분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만큼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편의 가리봉 소탕 작전 4년 뒤를 배경으로 한 ‘범죄도시 2’는 괴물 형사 마석도와 금천서 강력반이 베트남 일대를 장악한 최강 빌런 강해상을 잡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다.

2017년 가을 개봉한 ‘범죄도시’는 관객 688만명을 동원하며 국내에서 개봉한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 중 흥행 3위에 올라 있다.

마동석은 “‘범죄도시’는 통쾌한 액션과 살아있는 캐릭터가 장점인데 2편은 전편보다 스케일도 커지고 더 강한 매운맛 캐릭터가 등장한다”며 “배우들의 연기만 봐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편의 윤계상이 연기했던 장첸에 이어 손석구가 새로운 빌런 강해상을 연기했다. 마동석은 “1편의 장첸이 호랑이였다면 2편의 강해상은 사자다. 둘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즐기시면 된다”며 “손석구가 얼마나 훌륭한 액션 배우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동석의 맨주먹 액션은 마블의 히어로 영화 ‘이터널스’에서 차용했을 정도로 그의 전매특허다. 마동석은 “제가 복싱을 굉장히 오래 해서 복싱 위주의 액션을 하는데 형사는 제압하는 동작들도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김동현 선수에게 배운 유도 기술 등 좀 더 다양하고 통쾌한 액션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동석은 지난해 개봉한 ‘이터널스’ 이후 처음 선보이는 ‘범죄도시 2’에 대해 “가장 애착이 많은 영화”라고 했다.

그는 “‘범죄도시’의 기본 바탕은 리얼리티”라며 “형사분들에게 받은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중요한 주제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영화에서 전편을 답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후속편들도 준비 중인데 매번 나올 때마다 신선함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석구는 “팬데믹 때문에 촬영도 예상보다 오래 걸렸고 기다림이 굉장히 길었다”며 “그 어떤 작품보다 많이 기다렸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처음 이 영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촬영할 땐 부담이 없었는데 예고편이 나온 이후 반응을 보면서 이제야 현실감이 들고 부담이 생겼다”며 “(전작과 비교해) 굳이 다르게 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던 대로 임했다”고 말했다.

전편의 조연출을 맡은 데 이어 2편을 연출한 이상용 감독은 “코로나19로 베트남 현지에서 철수하고 이후 상황이 계속 나빠졌는데 그 와중에 열심히 즐겁게 촬영하고 1년 넘게 기다려준 배우들과 스태프들 덕에 완성할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다.

영화는 다음 달 18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북미,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132개국에 선판매됐다.

마동석은 “팬데믹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힘들었는데, 통쾌하고 시원한 ‘범죄도시 2’를 보시면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부모님 모시고 극장에도 오셔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문화가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송가인 어버이날 무료 온라인 공연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다음 달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네이버 나우에서 무료 온라인 공연을 연다고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가 23일 밝혔다.

포켓돌스튜디오는 “디너쇼와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 제의가 들어왔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하고 팬을 위한 마음으로 무료 공연을 택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송가인은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와 PC로 편하게 공연을 즐기고, 어르신들이 제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잠시나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해방되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가인은 지난 21일 정규 3집 ‘연가’를 발표했다. 이 음반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를 콘셉트로 팬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담은 정통 트로트 앨범이다.

송가인은 다음 달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도 연다. /연합뉴스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비 최초 15억 뷰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15억 뷰를 넘어섰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2019년 4월 발표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는 전날 오후 4시 43분께 유튜브 조회 수가 15억 회를 돌파했다.

BTS의 뮤직비디오 가운데 유튜브에서 15억 뷰를 달성한 작품은 처음이다. 이 뮤직비디오는 지난해 11월 14억 뷰를 넘긴 지 약 5개월 만에 1억 뷰를 더했다.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 앨범의 타이틀곡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너’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 작고 소박한 사랑의 즐거움을 이야기한 곡이다. /연합뉴스

배성재

‘국대는 국대다’ 배성재 “전설들 경기 중계 꿈만 같아”

MBN ‘국대는 국대다’가 한 달여간의 재정비를 23일 마치고 돌아왔다.

이 프로그램은 은퇴한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가 현역 국가대표와 대결을 펼치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방송을 시작해 현정화, 이만기 등 각 종목의 ‘레전드’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페이스메이커이자 MC인 배성재는 “제가 어렸을 때 지켜봤던 전설적인 선수를 중계하는 게 꿈꾸는 것 같다. 스포츠 캐스터로서 이룰 건 다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중계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배성재와 함께 진행을 맡은 전현무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며 “처음엔 레전드분들이 거의 패배할 줄 알았는데 현정화 감독님부터 이긴 경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눈물이 차오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국대는 국대다’는 녹화하면서 울컥한 순간이 꽤 있었다”고 했다.

재정비 기간을 거친 ‘국대는 국대다’는 프로그램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종목을 선보임으로써 새로움을 꾀할 예정이다. 23일 방송에서는 ‘전설의 복서’ 박종팔이 34년 만의 복귀전을 치렀다.

연출을 맡은 이효원 PD는 “박종팔 선생님을 섭외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면서 지난해 9월부터 섭외를 시작해 집까지 찾아가는 등 끈질긴 설득을 했다고 뒷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국대는 국대다’로 이달의 PD 상을 받기도 한 이 PD는 “이 프로그램만의 차별점은 진정성”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예능은 본인이 했던 종목을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자신이 평생 해오던 종목에 재도전하는 거라 애착이 남달라요. 자기 종목에 누가 될까 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대충 찍어도 진정성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성재, 전현무, 김동현, 홍현희, 김민아 등 다섯 명의 페이스메이커들은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싶은 레전드 선수로 역도 장미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체조 양학선, 마라톤 황영조 등을 언급했다.

최근 임신 소식을 알린 홍현희는 “옛 국가대표 선수들과 삶을 얘기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며 “2세를 가졌는데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프로그램에 애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